

노동자연대 공개 온라인 토론회

능력주의는 불평등의 세습에 좌절하는 청년에게 공정을 보장할까?

7월 1일(목) 오후 8시

발제 정원석 고등학교 교사, 전교조 조합원

실시간 생중계



노동자연대TV 채널

youtube.com/c/노동자연대TV



불평등의 심화가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면서 '엄마 아빠 찬스' 말고 '능력대로'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도 확산됐습니다. 과연 학교와 직장의 평가제도는 능력의 지표일까요? 고연봉 기업 임원들은 능력에 따라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일까요? 일부 정규직 노동자는 능력주의를 근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기도 합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노동계급의 대안은 무엇일까요?

문의 02-2271-2395, 010-4909-2026(문자 가능)

